

'창조적 난장' 들끓는 축제의 현장을 찾아

《축제의 정신》 펴낸 이상일 교수

20여년 동안 국관과 연극무대의 축제현장을 찾아다녔던 이상일 교수(성균관대 독문학, 65)가 《축제의 정신》(성균관대출판부)을 펴냈다. 오는 가을학기 정년퇴임을 앞두고 여러 지면을 통해 발표했던 축제이론과 축제현장 보고서를 묶은 것이다.

해방과 자유의 축제정신 복원

이 책은 근대적 합리성에 의해 '일탈'과 '낭비'로 규정되어온 축제의 정신을 복원하는 데 바쳐진다. 지금까지 축제에 달라붙었던 부당한 평가절하와 편견에 맞서 축제의 해방정신을 탈환하려는 것이다. 다음 서문의 말은 이 책의 '색깔'을 읽어내는 출발점이 된다.

“상식과 통념을 나는 믿지 않는다. 흥부의 가난보다 놀부의 게으름을 역설적인 미덕으로 간주한다. 그러니까 춘향의 정절보다 변사또의 색욕이 건강해보이고 심봉사의 맹추보다는 뽕떡어미의 교활이 당연해보인다. 그런 면에서 민속극에 등장하는 취발이의 후안무치가 어중간한 윤리도덕보다는 훨씬 정직해보인다고 해서 탓할 수가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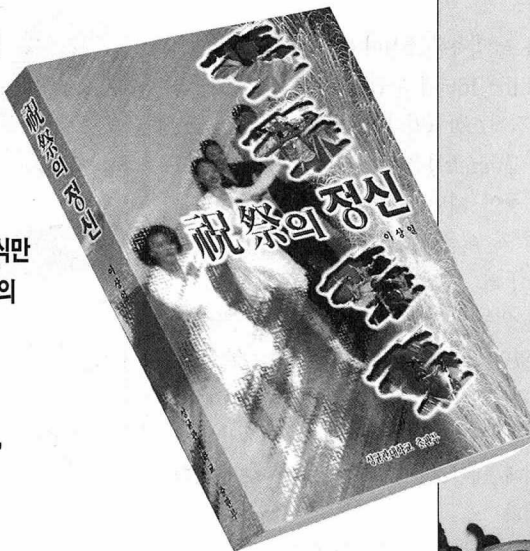
우리의 상식과 통념에는 '놀이=게으름과 방종'이라는 도식이 깔려 있다. 절제와 근검의 미덕이 강조되어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축제의 정신은 이를 정면으로 거스른다.

“원래 축제는 카오스와 난장을 통해 인간의 근원적 활력을 되찾는 것을 말합니다. 축제는 리듬감, 삶의 고양과 표현을 통해 삶의 불안을 잊게 하고 인간의 근원적 욕망을 되찾게 합니다. 그러나 조선의 엄숙한 유교 이데올로기와 일제의 문화적 침탈은 축제의 활력을 금기시했습니다. 노동과 근면만을 강조하고 난장과 일탈은 부정하는 이데올로기를 주입시켰던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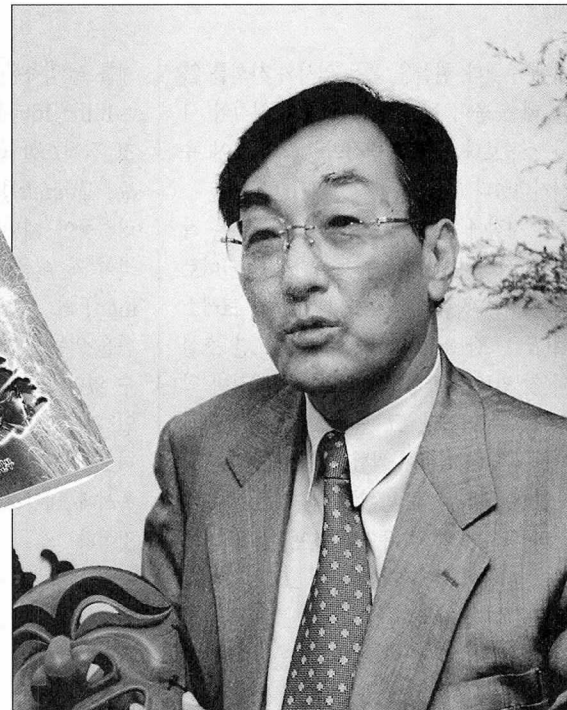
그러나 이상일 교수는 바로 '난장'에 축제정신의 핵심이 놓여 있다고 본다. 일상의 질서는 난장의 여과를 통해 건강한 생명력을 유지시켜갈 수 있다는 것이다.

“축제를 금기시하는 이면에는 축제가 '난장'이라는 의식이 깔려 있습니다. 그러나 낭비나 일탈이 아닌 '창조적 난장(org)'이야말로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가는 원동력입니다. 카오스 후의 생기가말로 일상의 삶을 고갈시키지 않는 싱싱한 수맥을 뽐치고 있습

“축제는 카오스와 난장을 통해 인간의 근원적 활력을 되찾게 합니다. 카오스 후의 생기는 일상의 삶을 고갈시키지 않는 싱싱한 수맥이지요. 오늘날 우리의 민속축제는 과거의 형식만 남아 있고, 상품광고나 스폰서의 잔치마당으로 타락했습니다. 현재를 반영하는 삶의 축제가 이 시대 이 땅의 축제로 자리매김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상일 교수



니다.”

이교수가 축제에 관심을 가진 것은 스위스 취리히 대학에서 독일 드라마를 공부하면서부터. 드라마의 기원을 찾는 과정에서 우리 연극의 기원으로까지 관심영역이 확대되었다. 70년대 초부터 우리 연희의 기원을 밝히기 위해 향토·민속축제의 현장에 달려갔다. 때로 산신각에서 무당과 함께 기식하면서 무속에 표현된 연극성을 개념화하는데 힘썼다.

이러한 떠돌이 학문적으로 축적되어 《국, 그 황홀한 연극》(강천), 《놀이문화와 축제》(성균관대출판부), 《변신이야기》(밀알), 《한국인의 국과 놀이》(문음사) 등의 저서로까지 이어졌다. 전통 국과 놀이의 생동감이 서구연극의 극적 요소와 만나는 접점을 탐사한 성과물들이었다.

“유럽과 일본의 민속축제는 현대의 도시 축제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반면 우리의 축제는 향토·민속축제에 머물고 맙니다. 과거의 형식만이 남아서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민속축제는 당대의 생활 현실만을 반영할 뿐입니다. 거기서 그친다면 오늘의 삶이 약동하는 축제정신을 박물관에 가두어버리게 됩니다.”

오늘날 민속놀이나 세시풍습의 이름으로 남아 있는 축제의 형식들은 과거 삶의 현장에서 나온 것이다. 그러므로 향토축제에는

그 나름의 유래가 있고 역사적 진실이 담겨 있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의 축제는 상품광고의 미인선발대회로 타락하고 몇 푼의 광고홍보비에 의해 스폰서들의 잔치마당이 된다. 이교수는 현재를 반영하는 삶의 축제가 이 시대 이 땅의 축제로 자리매김되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한다.

오늘의 삶 담아내는 축제로 계승돼야

그렇다면 축제의 정신을 회복하기 위한 핵심적 키워드는 무엇일까. 이교수는 세가지를 든다. 먼저 인간의 근원으로 돌아가는 '근원회귀'의 정신. 모든 것이 가능하고 허용되는 신화적 세계에 대한 그리움이 축제로 표현된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축제를 통한 민족적 이미지의 확보. 즉 축제를 통해 신화적 세계로 복귀함으로써 민족동질성을 확인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축제는 결국 오늘의 삶이 총체적으로 담겨 있어야 한다는 관점이다.

축제에는 역사성·지역성·민중성과 함께 극적인 요소들이 스며들어 있다. 이교수는 이를 독일 서사극 이론을 빌려와 분석한다. 즉 브레히트의 '낯설게 하기' 효과가 우리의 축제 속에 담겨 있다는 것이다.

“축제는 기본적으로 일상의 질서를 흔뜨려놓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권태롭고 반복적인 생활 속에서 참신한 감각을 복돋워줍

니다. 이것이 바로 축제가 '낯설게 하기' 이론과 연결되는 지점입니다. 독일의 서사극 이론은 평범한 것에서 낯선 사물이나 사건을 등장시켜 그것을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보게 하는 효과를 냅니다.”

이교수가 궁극적으로 꿈꾸는 축제는 '우주론적 축제'다. 이는 향토·민속·동양·세계축제라는 틀을 벗어나 우주와 맥을 잇는 축제를 말한다.

“축제는 인간이 대지를 딛고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러한 제의는 인간과 하늘 그리고 대지가 일체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꿈꾸어야 할 축제는 인간이 하늘과 대지를 잇는 우주론적인 대화가 되어야 합니다.”

오는 가을 정년퇴임에 맞춰 논문집이 출간된다. 독일 드라마 전공자들의 논문을 모은 《서사극 연구》가 그것. 지금까지 서사극은 주로 브레히트 이론을 중심으로 전개되어 왔지만 이 책은 한국과 동양의 연희도 서사적 구조를 가진다는 점에 초점을 맞춘다.

정년퇴임을 앞둔 이교수의 노후계획은 소박하다. 어떻게 잘 노느나 하는 법을 더 배워야겠다는 것. 좋아하는 공연예술과 축제현장에 자유롭게 다녀볼 생각이다. 외국문학도로서 번역작업에도 힘써볼 계획이다. 이것이 이교수가 노년에 준비하는 또 하나의 '축제'인지도 모른다. — 박천홍 기자